

트럼프, 北·中·日·러 정상외교 시동 걸어...한국은 패싱?

첫 회견서 푸틴·김정은·시진핑 등과 친분 과시 日 총리와 회동 시도...주한미대사만 지명 안해 韓 탄핵 혼란 속 방위비 압력·조기 북미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까지 한 달여 남겨 놓은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따라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현지시



간)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리아고 리조트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의 정상들을 모두 거론했다.

그는 대선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

들이 "천문학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푸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을 향해 "(중전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김 위원장을 3차례 직접 대면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결렬된 이후에도 이른바 '리브레티'로 불리는 서한외교를 이어왔다.

그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언급해왔는데, 재집권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거듭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브로맨스'도 과시했다. 이미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 주

석을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의 취임식 참석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는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를 통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미중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세계의 분쟁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1기 때 쌓은 적성국 정상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직접 소통 의지를 보인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취임 전이라도 회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선 후 첫 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의 정상을 모두 거론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

화를 나누기도 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시야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적인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풀이되고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엔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명했다.

하지만, 주한미대사에 대해선 아직 발표가 없는 것은 물론 워싱턴 외교가에선 누가 후보로 거론되는지조차 회자되는 게 별로 없다.

한국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과 함께 양국 정상 간

트위크가 불가능해진 점에 대한 우려와 경고음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항은 거의 확실하 10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의미한다"며 "모두가 마라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집권 2기 행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의 '새판짜기'를 시도할 경우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패싱'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와 관련한 초기 행정부 인선을 보면 조기 북미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美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美 민주주의도 어려움 겪어"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 관련 "美정부발 정보로 인지하지 못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 1월6일(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에 흔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면서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어준씨가 관련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분이 언급한 정보와 관련해서 난 그런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

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에 일관되게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개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근본적인 이해관계인데 한미일 3자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남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 근해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4명으로 늘고 2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케이트 그린우드 국제재난조사·적십자사 태평양대표단장은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0개 섬으로 이뤄진 바누아투의 인구는 약 33만명이다.

/EPA=연합뉴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볼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